

제주도 당본풀이에 나타난 ‘덧고기 부정’의 의미와 기능

김진영*

目 次

- I. 서론
- II. 마을의 지리적 위치와 당신의 성격에
따른 덧고기 부정의 분석
- III. 여성의 임신금기로서의 덧고기 부정
- IV. 결론

I. 서론

2007년 종교학과 가을답사에서는 제주도의 몇몇 마을 신당(神堂)들을 방문하여 제주도 무속 신앙의 실제 모습들을 살펴 보았다. 신당은 마을의 신이 거하는 장소로써 이곳에서는 여성 중심의 무교식 마을 제인 당굿과 남성 중심의 포제가 행해진다. 당굿에서 심방은 신의 내력을 소개하는 당본풀이¹⁾를 부르는데, 당본풀이는 ‘왜 굳이 특정한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석사과정

- 1) 본풀이란 신(神)의 ‘본(本)’을 푸는 것, 즉 신의 내력을 되새기는 이야기이다. 제주도의 본풀이는 자연, 저승, 수복 등에 관여하는 일반적인 신들에 대한 ‘일반 본풀이’와 마을의 고유한 장소에 존재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을 돕는 본향신, 치병신 등 당신(堂神)에 대한 ‘당본풀이’로 나뉜다.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서울: 민속원, 1991), pp. 40-41.

신이 마을의 특정한 장소에 좌정했는가'의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여느 장소와 다를 바 없었던 곳을 신이 거하는 최적의 장소이자 성스러운 공간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당본풀이 속 당신들은 옥황상제, 제석(帝釋), 미륵보살 등 잘 알려진 신들의 몇째 딸, 몇째 아들 등으로 등장하면서 그 성스러움과 능력이 확증되고 있으며, 당신의 본적(本籍)과 식성이 제시됨으로써, 각 신의 성격에 맞는 적합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말한다.

제주도의 신당들을 답사하면서 특히 눈에 띄었던 점은, 와흘리 본향당의 본풀이에서 소위 '돛고기(돼지고기) 부정'이라는 연유로 인하여 같은 신당 안에 남신과 여신 두 신이 서로 분리되어 좌정하고 있는 점이었다. 답사 동안 거의 매끼마다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이 나왔고, 실제로 돼지는 제주도 도통시 문화를 바탕으로 중요한 식재료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풀이 속에서 이처럼 돼지고기를 금하는 내용이 등장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웠다. 또한 남성 중심의 유교식 제사인 포제(布製)나 다른 제사들에서는 별도의 금기 없이 바쳐지고 있는 점을 보아 유독 당본풀이에서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부정으로 취급되는 것은 특이한 점이었다.²⁾

실제로 우리가 답사했던 이 두 마을 신당뿐 아니라, 돛고기 부정으로 인한 신의 분리라는 신화소는 제주도 전역의 당본풀이에서 발견되고 있다. 반면 육지의 신화나 제주도의 일반 본풀이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당본풀이는 제주도 마을들의 고유한 환경과 맥락, 그리고 여성의 문화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모든 당본풀이에서 돛고기 부정이라는 원인 때문에 신이 분리되는 것도 아니다. 마을이 서로 통합되면서 이후에 들어온 신은 그 신의 성별이나 속성과 관계없이 아래에 좌정하기도 하고, 특별한 부정 등의 연유 없이 분리되어 좌정하기도 한다. 또한 같은 당신에 대

2) 인류학자 Marvin Harris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지역의 사람들, 이슬람 교도나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를 돼지의 습성과 지역의 환경적 특성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하였듯이, 제주도 본풀이에 등장하는 돛고기 부정을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참조, 다빈 해리스, 『문화의 수수께끼』, 박종열 옮김(서울: 한길사, 1993).

한 본풀이에도 당에 따라, 구연 심방에 따라 실로 다양한 내용이 전해진다. 이러한 다양성 때문에 당본풀이 속 덧고기 부정의 의미와 기능은 개별 본풀이의 맥락과 본풀이와 영향을 주고 받은 다양한 환경적,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여 복합적인 차원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더불어 모든 해석은 한가지 가능성으로만 제시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주시와 조천읍의 본풀이를 중심으로 해변-농업이 가능한 중간지대-오름-산간으로 크게 구분되는 제주도 마을들의 지리적 위치와 모시는 당신의 속성, 그리고 덧고기 부정의 연관성을 살펴볼 것이다.³⁾ 이를 통해 당본풀이가 공동체의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킨 측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범위를 제주시와 조천읍으로 한정하는 것은 답사 때 방문

3) 현용준은 당본풀이의 유형과 신당의 분포의 상관성을 논하면서 본풀이의 핵심에 따라 제주, 조천, 구좌 등의 松堂(송당)신화계구역, 한림, 한경, 애월 등의 井·戊日堂(축·술일당)신화계구역, 안덕 일대의 下窺7日堂(하에7일당)신화계구역, 표선, 남원의 兎山7·8日(토산7·8일당)신화계구역, 서귀포, 중문, 안덕 북부의 好近7日堂(호근7일당)신화계구역으로 나누었다. 이들 중 송당 신화계 구역과 토산 7일당 신화계 구역, 호근 7일당 신화계 구역에 덧고기 부정이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서울: 집문당, 1992). p. 114.

또한 김현선은 현용준의 논의를 발전시켜 개별 본풀이 속 당신의 계보는 한라산을 기준으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그리고 남신과 여신의 계보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의 계보가 각각 독자적으로 성립했다고 본다. 참조, 김현선, “제주도 당본풀이의 계보 구성과 지역적 정체성 연구”, 『비교민속학』, (비교민속학회지, 29권, 2005).

본 논문에서는 송당 신화계에 속하는 제주시와 조천읍의 본풀이에 연구 범위를 한정한다. 또한 당신의 계보를 추적하기 보다는, 각 본풀이 속에서 당신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구좌읍의 경우 제주시와 조천면 본풀이들을 통해 충분히 논지가 전달되었다고 여겨져 지면 상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현용준과 김현선의 연구에 기반을 두고 각 신화계와 당신의 계보를 기준으로 덧고기 부정이 어떻게 변형되어 드러나고 있는지 연구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일차적으로 마을의 지리적 위치와 당신, 덧고기 부정의 상관관계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연구는 추후로 미루기로 한다.

하였던 와홀리 본향당이 제주시의 마을이라는 점에서 와홀리를 포함하는 주변 지역을 연구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또한 두 지역 모두 북제주군에 속하면서 송당신화계열의 본풀이들이 주(主)를 이루어, 비슷한 구조 속에서 돛고기 부정의 의미와 기능을 파악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아가 제주 여성들의 관습을 통하여 왜 굳이 돛고기 부정이 분리의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그 한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돛고기 부정이 당곳에 직접 참여하는 여성 주체들에게는 어떻게 인식되고 기능하였는지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II. 마을의 지리적 위치와 당신의 성격에 따른 돛고기 부정의 분석⁴⁾

1. 제주시 마을들의 당본풀이 속 돛고기 부정

제주시 건입동, 삼양동의 해변 마을에서는 용왕 천자국의 부인이 등장하며 특별히 남녀신의 갈등이나 돛고기 부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 하천 근처의 이도동과 용담동, 오름으로 이어지는 중산간 지역의 마을들에서는 유사한 본풀이 구조 속에 남신과 여신의 분리가 등장한다.

먼저 용담동과 이도동의 본풀이는 매우 유사한 구조를 지니면서도 다른 점이 두드러진다. 두 본풀이는 신의 성격에 따라서 본풀이 속에서 돛고기 부정이 좌정지의 분리의 이유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렇지

4) 본풀이의 자료는 진성기의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에 채록된 것을 이용하였다. 마을 안에서도 동(洞)과 심방, 당에 따라 다양한 본풀이가 구전되나 공통의 일 반적인 특성을 묶어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마을의 다양한 본풀이의 특징을 아우를 수 있으면서도 보다 긴 서사 구조를 가져 습합의 가능성을 짐작 하게 하는 본풀이들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채록시기와 구연자는 별도로 표기 하지 않았다.

않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용담동은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지만 용담동의 내왓당은 오라동 서수문(西水門)발 삼동(용담에서 1km 정도 남쪽에 있는 못)물가에 좌정한 바람웃또(上位都), 제석천왕 마노라 등의 열두신위전(十二神位前)을 모시고 있는 당이다.⁵⁾ 남신 바람웃또는 대국천자의 아들로 아버지가 세수하러 간 사이 장난을 쳐서 무쇠함 안에 갇혀 바다 위에 버려진다. 바다의 산호수 가지에 걸린 무쇠함을 용왕의 첫째 딸과 둘째 딸은 발견하지 못하고 셋째 딸이 발견하여 내린다. 그 안에서 나온 바람웃또는 꼭 셋째 딸의 방으로 들어가기로 고집하여 둘은 부부가 된다. 다음 날 아침상을 받은 그는 자기 고향에서는 흰 쌀밥과 쌀 시루떡, 소주와 달걀안주를 먹는다면 먹기를 거부한다. 용왕은 그를 대접하느라 재산이 축나자 셋째 딸과 사위를 내보내고 이들은 제주도 산지포구에 도착한다. 바람웃또는 “어디가 깨끗하냐?”라고 물으며 “깨끗한 데를 찾아서” 오라동에 좌정한다.⁶⁾ 본풀이에 등장하는 오라동 산지포구의 산지천은 깨끗한 강물로 예전부터 제주의 젓줄로 여겨졌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이 하늘에서 기원한 바람웃또가 깨끗한 것과 농사를 통해 얻는 쌀과 같은 곡식으로 된 음식을 좋아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⁷⁾ 또한 바람웃또가 많은 밭과 노비들을 데리고 거부로 살았다는 내용은 농경에 기인한 풍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함께 들어간 용왕의 셋째 딸 군농또 부인은 아기 일곱을 임신했는데 다침 바람웃또가 없는 새에 변소에 들어갔다가 돼지고기를 먹고 싶어 돼지털 새 개를 뽑아서 방 안의 화로에 넣는다. 그러자 돌아온 바람웃또는 돼지고기 냄새(돈경내, 췌경내)에 역정을 내며 부인을 쫓아낸다. 털 냄새를 맡은 죄 밖에 없는 군농또는 화가 나 부채질하면서 일곱 아기와 함께 나와 궁당에 좌정한다.⁸⁾ 용담

-
- 5) 따라서 해변가인 용담동에 위치한 다른 당인 가시락당에서는 해신인 용왕국의 셋째 딸 아기의 본풀이가 불리는 것을 볼 수 있다.
 - 6) “바람웃또가 산짓명으로 들어오라서 산설물설을 밟아 올 때에, “어디가 공차(깨끗)하냐?” 공차한 데를 주워서(찾아서) 제주서 오라동에 좌정하고 워낙 거부로 잘 살았습니다”
 - 7) 용담동 근처의 농경 중심의 삼도동 각시당 본풀이에서도 당신은 이처럼 쌀로 만든 음식만을 고집한다.

동의 다른 당인 궁당의 본풀이에 의하면 이미 군농또는 일곱 아기를 낳은 상태이며 바람웃또는 “양반의 부인이 부정(不淨)해서 못쓰겠다” 하며 내쫓고 있다. 내왓당 본풀이에서는 남신과 여신이 각각 용담동의 궁당과 내왓당에 좌정하게 된 연유를 말해준다.

그러나 해변가 이도동의 과영당 본풀이는 이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보이거나 용담동과는 달리 돛고기 부정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⁹⁾ 과영당의 본풀이는 몇 개의 신화소가 혼합된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송당계열의 ‘공부를 많이 한 남신’이 본풀이의 주인공으로 바람웃또와는 달리 남신은 천상에서 기원하지 않으며 하천과도 특별한 관계가 없다. 또한 와흘리 본풀이에서 남신은 자의(自意)로 내려와 좌정하는 반면 여기에서는 장난으로 인해 부모의 눈 밖에 나서 결국 쫓겨나 바다에 떨어진다는 용담동 본풀이와 유사한 구조가 혼합되어 드러나고 있다. 용담동 본풀이처럼 셋째 딸은 운명적으로, 또한 남신의 선택으로 부부의 연을 맺고 있는데, 이를 서술하는 구조와 화법이 용담동 본풀이의 구조와 거의 같다. 그러나 과영당에 남신이 좌정하고 있는 원인은 여신의 돛고기 부정이 아니며 남신의 아버지의 명령 때문이다. 이처럼 인접한 마을의 두 본풀이가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면서도 본풀이의 목적인 ‘좌정지의 연유를 설명하는 데’에서 돛고기 부정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본풀이 속 남신이 특별히 깨끗한 것을 고집하는 신이 아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 점은 중산간과 오름 지역의 본풀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름지역 용강동의 꿩당한집 본풀이에는 옥황상제의 셋째 딸이 농사를 짓는 땅을 보고 반하여 내려와 좌정한다. 이 때 특별한 남신이 등장하는 것도 아닌데 여신은 스스로 “여자는 아득하게 사는 법이라”

8) 돼지고기를 먹고 일곱 아기를 낳는다는 신화소는 종종 발견된다. 현용준은 원래 사람은 많아야 3~4쌍둥이를 낳는데 본풀이의 여신은 다산(多産)을 하는 돼지의 영기에 감염되어 많은 아기를 낳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는 아직 이것은 해결되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있다고 한다.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서울: 집문당, 2005), pp. 170-171.

9) 이도동 과양당의 본풀이도 심방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다. 다른 본풀이들은 당에 모신 신위들의 내력만을 짧막하게 말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본문에 언급된 본풀이는 유일하게 긴 서사 구조와 복합적 신화소들을 가지고 있다.

말하며 하천 아래로 좌정한다. 한편 한라산 산신백관은 여기저기 사냥 다니다가 여신과 부부간 삼기를 원하고, 여신은 이에 남신에게 어떤 음식들을 먹느냐고 묻는다. 이에 남신이 밥, 술, 간(肝), 혈(血), 콩팥, 허파 등을 다 잘 먹는다고 하자 그녀는 남신에게 서쪽으로 좌정하라고 한다. 이러한 남신의 식성은 오름, 산간 지역의 식습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남신의 기원과 함께 그를 산신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오름 지역 본풀이는 산신과 농경신의 만남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여신이 고기를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남신과 분리하여 좌정한다.

또 다른 오름지역 마을인 영평동 산신당 본풀이에서는 마을에 원래 좌정하고 있던 은기, 늦기 여신에게 산신인 남신이 명함을 건네려 하자 여신들은 “이런 언관도사¹⁰⁾ 같은 양반이 우리같이 어리고 미육한 여성에게 무슨 명함입니까?”하며 거절한다. 결국 남신의 강권으로 함께 살게 되었으나 산신은 술, 고기 등을 먹고 싶어 여위어 가고, 이러한 점을 알게 된 여신들은 “맑은 도(都)와 같이 못삽니다. 바람아래(바람이 불어가는 쪽)¹¹⁾로 좌정하십시오”라고 한다. 이처럼 용강동과 영평동 본풀이에서도 신의 성격에 기인하여 맑은 신, 즉 농경과 관계된 신들이 깨끗한 바람 위 쪽에 좌정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¹²⁾

제주시 마을들의 본풀이 분석을 통하여 당신들의 성격은 일반적으

10) 조선 시대에, 사간원과 사헌부에 속하여 임금의 잘못을 간(諫)하고 백관(百官)의 비행을 규탄하던 벼슬아치로 암행어사로도 활동하였다.

11) “바람아래”, 『표준국어대사전』(서울: 두산동아, 1999). 종종 부정하다 여겨진 신이 깨끗한 신과 떨어져 좌정하게 될 때 ‘바람아래’라는 표현이 쓰인다. ‘바람아래’는 ‘바람이 불어가는 쪽’을 의미하기 때문에, 남신과 여신이 완전히 분리된 신당에 모셔지지 않고 같은 당 안에서 자리가 나뉘어 떨어져 모셔지는 것은 일차적으로 ‘냄새’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바람위(바람웃도)’에 좌정할 경우 바람아래에서 풍기는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된다.

12) 신의 속성에 따른 분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문무병, “제주도 당 신화 연구”(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pp. 232-250. 또한 돛고기 부정을 농경과 수렵 문화의 만남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송성대, 김정숙, 「濟州島 神話 속의 女性原型 研究」(문화역사지리지, 12권 1호, 2000)을 참조하라.

〈표 1〉 제주도 마을의 당본풀이와 돛고기 부정 정리

지리	마을	남신	여신	분리의 이유	분리좌정의 양상
해변	건입동, 삼양동 등	남·여신 구분 없음	남·여신 구분 없음	-	-
해변	이도동 (과영당)	송당계열의 남신	용왕의 셋째 딸	-	-
해변~오름 (농경가능)	용담동 (내왓당)	대국천자의 아들 바람옷또로 깨끗한 것을 좋아하며, 쌀로 된 음식을 먹음	용왕의 셋째 딸 군농또 부인	임신으로 인한(또는 출산 후) 돛고기 부정	남신은 내왓당에, 여신은 궁당에 좌정
오름 (농경가능)	용강동 (깨당)	한라산 산신백관	옥황상제의 셋째 딸로 농사를 동경함	남신의 더운 간, 혈, 허파 등을 먹는 식성	여신은 남신의 식성에 따라 서쪽에 좌정하라고 함
오름 (농경가능)	영평동 (산신당)	산신	농경신 은기, 늦기 여신		여신이 남신의 좌정이 부정하다 하여 바람 아래로 좌정하라 함

로 마을의 지리적 특성 — 해변가, 농경이 가능한 용천지대, 중산간과 오름 지역 — 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남신과 여신의 분리는 기본적으로는 지형적 특색과 신의 성격에 따른 것이지만, 신의 성격에 따른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여신이 깨끗한 신으로 등장하는 경우에도 남신의 입이 아닌, 여신의 입을 통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원칙적으로 낮은 위치라는 점을 강조한 후 분리의 작업이 일어난다. 이는 후에 결론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2. 조천면 마을들의 당본풀이 속 돛고기 부정

조천면은 해변에서부터 오름까지 넓은 지역을 차지한다. 북촌리,

신흥리, 조천리 등 해변 지역 마을들의 신들은 다양하며 특별히 남녀 양 신 주인공과 두 신의 분리라는 모티브는 등장하지 않는다.

반면 중산간 지역이자 오름이 드문드문 시작되는 마을인 와흘리 당본풀이에서는 산신적 성격을 지닌 남신 산신평도가 사냥을 하다가 유랑하다가 이미 좌정해 있던 여신 큰도부인과 부부의 연을 맺고 좌정하게 된다. 그리고 큰도부인은 돛고기 부정을 범함으로써 바람아래로 밀려나 좌정한다. 그러나 앞 절의 제주시 용강동과 영평동 본풀이에서는 오히려 남신인 산신이 부정하기 때문에 여신이 바람 위에, 남신이 바람 아래로 좌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와흘리 본풀이에서 산신계열의 남신이 왜 굳이 돛고기 부정이라는 이유로 여신과 분리를 선언하고 있는가?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구전되는 와흘리의 다른 당본풀이들에서는 부부신의 분리나 돛고기 부정이 등장하지 않는다.¹³⁾ 또한 돛고기 부정이 등장하는 본풀이의 경우 산신평도가 여신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장면 다음에 바로 임신한 여신의 돛고기 부정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맥락과 관계 없이 좌정지의 분리에의 이유를 들기 위해 중간에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¹⁴⁾ 이러한 신화소들의 습합은 당신들이 서로 형제자매, 부자 등 계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심방들이 대충이나마 다른 신들의 본풀이도 알고 있어야 했던 점, 심방이 다른 마을의 당굿이나 개인 가정굿도 행하였던 점, 주민의 이동과 마을의 분리 등으로 인해 여러 본풀이의 내용들이 혼합된 결과로 생각된다.

오름이 잦으며 산간으로 접어드는 목에 위치한 교래리의 남신은

13) 다른 한 본풀이에서는 송당국의 열 제 아들 백주도령이 하늘에서 공부를 하고 와흘리에 내려와 서울 서정승 따님아기(큰도부인)와 부부를 맺고 좌정한다. 언급했듯이, 여기에서 부부신은 갈라지지 않으며 함께 팽나무 아래 좌정하고 있다. 또한 돛고기 부정 역시 등장하지 않는다.

14) 구전되는 본풀이는 다음과 같다: “.../중매를 하여줍센 명암을 드리니/ 최씨 외대바지 할오방이 그 명암을 받아, 큰도부인한테 가서 전하니/ “아기마을 상마을 노린족달 한족달 서족달은 받아먹읍네다.”/먹는 음식말을 하여서, “어떤 일로 이것을 먹느냐?”/ “어는 아기는 낳자고 하면 입인들 아니 먹고 싶습니까?”/ 그렇게 하니 송당당 열한째 아들은 큰도부인에게 “바람아래로 좌정하라”하여서/”

송당신화계 산신또이며 미리 좌정하고 있던 여신은 큰도부인이다. 이 본풀이에서 원래 좌정하고 있던 큰도부인과 고씨할망은 명함을 건네어 자신을 소개하는 산신또에게 “언관도사같은 양반이 우리 같은 가인(家人: 집안사람, 아내)네에게 명함은 무슨 명함입니까?”라고 말하며 “언관도사 같은 어른은 바람 위로 좌정하십시오. 우리는 바람 아래로 좌정하겠습니다.”하고 적극적으로 위에 좌정할 것을 권한다. 산신또는 특별히 돼지고기를 금기하지 않는 산신이며 오히려 따뜻한 간, 혈(血), 콩팥과 허파 등을 즐기는 신이다. 남신과 여신의 바람 위와 아래 좌정지의 결정은 여신의 자발적인 양보로 이루어진다. 특히 여신의 ‘우리 같은 이런 가인네’라는 말은 매우 공손한 어투이며 남성보다 낮은 위치의 여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굳이 남신이 부정으로 인해 쫓아내지 않는데도 남녀신의 분리를 이와 같은 남녀 우월의 차이로, 그것도 여신이 스스로 설명해 내고 있는 점은 위에서 살펴 본 제주시의 오름 지역 마을들의 본풀이와 유사하다.

〈표 2〉 조천면 마을의 당본풀이와 돼지고기 부정 정리

지역	마을	남신	여신	분리의 이유	분리좌정의 양상
해변	북촌리, 신흥리등	특별한 남녀신 구분 없음, 다양한 신	-	-	-
오름	와홀리 (신당)	산신 산신또	원래 좌정하고 있던 큰도부인 또는 서울 서정승 따님이기	없는 본풀이도 있고 맥락과 분리되어 삼입된 본풀이도 있음	큰도부인이 바람 아래로 좌정함
오름	교래리 (다릿당)	산신 산신또	원래 좌정하는 큰도부인과 고씨할망	-	-

3. 마을의 지리적 위치-당신-돛고기 부정 사용의 관계

위에서 돛고기 부정이 분리의 이유로 사용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것은 마을의 지리적 위치와 당신의 성격 차이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음을 살펴 보았다. 해변지역의 마을들에서는 남신과 여신이 분리되지 않으며 비교적 다양한 신들을 갈등 없이 모시고 있었다. 그러나 농경이 가능한 해변에서 오름 사이의 마을들에서 하늘로부터 기원하였거나 농경, 물과 관련된 신들은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고기 냄새를 싫어하여 바람 위(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좌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았다. 특이한 것은, 남신이 깨끗한 것을 좋아할 경우 여신을 ‘돛고기 부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떨어져 좌정하게 하고, 여신이 깨끗한 것을 좋아할 경우에 여신이 바람 위에 좌정하면서도 그 전에 남녀위계의 차이를 언급하여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유교적 남녀구분의 문화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며 본풀이가 마을 공동체에서 이데올로기적 가치를 강화하는 기능을 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름지역의 마을들의 본풀이는 일반적으로 미리 좌정하고 있던 여신들과 산에서 내려온 남신이 만나서 두 신이 별도의 갈등 없이 각각 좌정하거나 돛고기 부정이라는 신화소를 사용하여 여신이 밀려나 좌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왜 남신이 여신을 멀리 좌정 시킬 때 다른 이유들이 아닌 굳이 돛고기 부정이라는 금기가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 이제 제주 여성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금기를 살펴봄으로써 그 이유에 대한 한가지 가능성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III. 여성의 임신 금기로서의 돛고기 부정

제주 여성의 금기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돛고기 부정은 남성이 여성에게 부과하던 비합리적 금기라기보다는, 일차적으로 여성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여성 공동체 내에서 전수되고 강요되던 것을 알

수 있다.

뚝고기 부정은 제주 여성들의 임신 금기였다. 전통적으로 산후조리 기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등 생리학적인 행위들 외에도 부정 타는 것을 방지하는 특별한 금기들이 있었다. 이것들은 삼신할머니 등 출산이나 산모, 아기와 가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들의 분노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전통적으로 출산과정은 피를 흘리고 더러운, 부정한 상태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부정을 정화하고, 외부의 부정을 막는 금기들이 행해졌던 것이다.¹⁵⁾ 특히 제주 여성들에게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금기가 있었는데,¹⁶⁾ 본풀이에 등장하는 뚝고기 부정도 임신을 한 여신이 범하여 깨끗하지 않다고 여겨져 자식들과 함께 쫓겨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관습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제주 산육기 여성은 인터뷰 결과 '아무거나 먹는 짐승이므로'라는 이유를 제시한다.¹⁷⁾ 이것은 변소에서 자라며 변과 음식 찌꺼기 등 아무거나 주는 대로 받아 먹으며 자라는 돼지의 습성이 산모와 태아에게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풀이에서도 여신이 뚝고기 부정을 범할 경우, 여신뿐 아니라 그녀가 낳은 자식들 모두 쫓겨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돼지고기 금기가 단순히 종교적인 목적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이유들은 보다 실제적인 것 — 산모의 치아가 손상되고 아기의 피부가 거칠어진다는 — 으로,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금기가 있었음에도 실제적 필요를 위한 경우에 금기는 보다 유연하게 해석되었는데, 한 예로 모유를 촉진하려는 돼지 족발을 먹는 경우가 있었다.¹⁸⁾ 이것은 산후조리가 기본적으로 여성의 필요에 의해 고안된 것이며 산모와 신생아의 회복을 돕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¹⁹⁾ 이

15) 강문정, 「제주도의 전통적 출산관리에 관한 연구」(모자간호학회지, 3권 1호, 1999), p. 21.

16) 신혜숙, 이경희, 「산육기 여성의 경험-제주지역을 중심으로」(여성건강간호학회지, 4권 2호, 1993), p. 276.

17) *ibid.*, p. 281.

18) *ibid.*, p. 277.

19) 이후에 언급하듯이, 뚝고기 부정을 범하는 것이 그리 큰 잘못이 아닌 것처럼

러한 실용성에서 시작된 행위들은 시간에 따라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와 구체적인 신념, 실천 체계가 되었다.²⁰⁾ 특히 이것은 제주 여성 공동체 내에서 전수, 보존되었다. 따라서 본풀이 속에서 뚫고기 부정은 남신과 여신의 좌정지를 가르기 위한 하나의 정당한 이유로서 제시되면서 남성우월적 사회의 모습을 고착화하는 기능이 있지만, 동시에 여성들이 공유하고 있는 출산과 이후 정화의 기간에 대한 전통적 가르침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²¹⁾ 또한 인간 여성이 아닌 '여신' 역시 임신과 출산, 그리고 금기의 경계까지 가고자 하는 욕망을 경험한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현실의 여성들의 경험을 옹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풀이 속 뚫고기 부정은 제주 여성들에게는 보다 너그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자 그들에게는 실제적 기능도 담당 하던 것이었다.

IV. 결론

제주시와 조천면의 당본풀이를 살펴 본 결과 제주도 마을들은 그 지리적 특성에 따라서 모시고 있는 당신의 성격에 차이가 있음을 알

표현되는 부분들은 이 금기가 있었지만 실제적 필요에 의해서는 먹을 수 있도록 유동적인 성격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20) *Ibid.*, p. 275. 특히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 등 이미 산후조리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대로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따라서 출산 경험자들은 자신이 해 온 방법이 최선이라며 강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욕을 하고 야단을 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분명한 이유를 모르고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았다. 산욕기 제주 여성의 경험을 연구한 논문에서, 산욕기 여성들은 이러한 조리행위에 대해 “왜 하면 안 되냐고 물으면 야단친다; 내 몸을 생각하여 안 먹어야 한다니까 안 먹는다” 등과 같이 답변하였다.

21) 본 논문에서는 문화인류학적으로 여성의 관습과 관련지어 뚫고기 부정이라는 신화소가 사용된 한 가지 가능성을 본 것이다. 현용준은 제주도 무속 사회에서는 쌀로 만든 음식을 절제한 것으로, 돼지고기를 부정한 음식으로 취급하여 쌀 음식을 먹는 신을 상위신, 돼지고기를 먹는 신을 하위신으로 친다고 한다. 이러한 구전 본풀이 때문에 뚫고기 부정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관습적 금기와 본풀이의 내용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보인다는 점만을 이야기 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pp. 161-162.

수 있었다. 또한 돛고기 부정은 제주 여성들의 임신 금기로서, 일반적으로 본풀이에서는 물가에 좌정하거나 농경과 관련된 깨끗한 신과 그렇지 않은 신의 분리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²²⁾ 당본풀이 속에서의 돛고기 부정의 기능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의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본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당본풀이는 남성우월의 사회 구조를 정당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여신에게 특별한 부정이 없는 본풀이의 경우에도 여신은 스스로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위치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물러난다. 또한 남신이 부정하다 여겨져 아래에 좌정하게 되더라도 여신은 남성의 우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본풀이는 이러한 여신의 모습을 당연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그리고 있다. 당본풀이가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마을의 당굿에서 불려졌으며 구전되고 암송되며 살아있는 형태로 전승되었음을 기억할 때, 이러한 본풀이의 내용은 그것을 부른 마을 공동체, 특히 여성들에게 암묵적으로 인정되었으며, 공동체 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정기적으로 기억시키고, 강화시키는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둘째로, 본풀이에서 남신이 아래에 좌정할 때는 단지 다른 것을 먹는다는 속성 때문에 분리되는 것이지 남신이 ‘금기를 어겼기 때문’은

22) 당에 피신 신들의 성격이 특별히 다르지 않을 경우에는 부부신이나 서로 관계하지 않으며 독자적으로 좌정하고 있다. 조성운 등은 신화학자들은 돛고기 부정을 간음의 상징으로 해석한다고 말하고 있다. 참조, 조성운 외,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서울: 백산서당, 2003), p. 145. 그러나 실제로 본풀이의 맥락을 보면 돛고기 부정을 간음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왜지는 다산의 상징으로 여겨진 점은 있으나 반드시 간음과 연결된 것은 아니다. 또한 깨끗한 여성 신이 육식을 하는 남성신을 바람 아래로 좌정시킨다는 본풀이도 발견되고 있으므로 이는 일차적으로 ‘냄새’ 때문이다. 바람 아래라는 표현은 이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 한데, 굳이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보통 바람이 불어가는 곳으로 냄새가 빠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여성의 임신 금기가 본풀이에 사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여성 인터뷰 기록에 ‘왜지는 아무거나 먹기 때문에 아기에겐 좋지 않아 먹지 않는다’는 식의 이해는 상징적이 아닌 물리적 정-부정(淨-不淨)의 개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을 지지한다.

아니다. 그런데 여신이 아래에 좌정하는 경우 굳이 뚫고기 부정이 그 이유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임신과 출산 후 산욕기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제주 여성들의 금기였다. 따라서 이 금기를 깨뜨린 여신은 남신의 역정을 감수하고 바람아래에 좌정해야 한다. 즉 이것은 여신이 잘못을 범하였기 때문에 받는 합당한 응보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당본풀이를 부르고 듣는 여성들은 남신과 여신의 분리를 정당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본풀이는 일상으로까지 연장되어, 남성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회구조를 무의식적으로 정당화하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기능을 하였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풀이 속에서 여신이 사실상은 그다지 큰 잘못을 범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대개 본풀이의 경우, 여신은 임신으로 인하여 너무나 돼지고기가 먹고 싶지만, 돼지를 직접 잡아 먹지는 않는 것으로 표현된다. 단지 길을 가다가 목이 말라 돼지 발자국에 고인 물을 먹거나 임신으로 인해 너무나 먹고 싶었지만 돼지 털 하나를 그을려 냄새를 맡은 정도이다.²³⁾ 그런데 여기에 대해 남신은 엄청

23) 다른 당본풀이에서는 실제로 돼지고기를 먹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서귀포시 보목동 '노죽잇당'의 본풀이에서는 돼지 항문으로 손을 넣어 간과 양을 빼먹었다는 구체적 내용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표현한 본풀이들은 소수이며, 대부분은 돼지 발굽 자국에 고인 물을 빨아 먹었다거나, 어쩌다 입수한 돼지털을 그을렸다는 완화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현용준은 이러한 표현은 최소한도의 돼지고기를 먹은 것을 뜻한다고 한다. 그러나 어쨌든 이처럼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점이다. 참조,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p. 170.

또한 뚫고기 부정이 반드시 임신과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 남제주군 표선면 토산리의 일뤼당(七日堂) 본풀이에서 이를 볼 수 있다. 일뤼또는 육아와 질병을 담당하고 있는 여신으로 제주도 전역에 걸쳐 나타난다. 일뤼당 당본풀이의 남신 바라못도는 용담동 내왓당의 남신인 바라못도로, 부인 일뤼또는 용왕국의 딸이다. 일뤼또는 임신하지는 않았지만 길을 가다가 목이 말라서 돼지 발자국에 고인 물을 먹다가 돼지털이 콧구멍에 들어갔다. 비록 그것을 빼내었지만 든경태가 진동하고, 이를 싫어하는 남편은 양반의 체면에 부정하다며 귀양을 보내고 있다. 여기에서는 뚫고기 부정이 반드시 임신 금기와는 결합되어 있지 않지만 여성의 (하찮은) 잘못으로 인해 남편의 화를 입어 쫓겨난다는 구조는 반

나게 역정을 내며 다른 곳에 가라고 한다. 내왓당 본풀이에서 여신은 이처럼 과도한 남편의 반응에 대해 불만을 품으며 물러나기도 한다.²⁴⁾ 분명히 부정은 부정인데 내쫓길 만큼은 아니라는 점, 그러나 순응하고 아래에 좌정하는 것. 이것은 남성 중심의 사회 속 여성의 심성을 본풀이를 사용해 재치 있게 표현한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 제주도 당본풀이에 등장하는 돛고기 부정의 의미와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돛고기 부정은 당곳의 시간과 마을을 성화(聖化)하는 본풀이의 일차적 기능에 사용된 동시에 집단의 질서와 구조를 강화하는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당본풀이를 더욱 많이 부르고 느꼈던 여성 공동체에게는 무의식적 불만 표출과 위로의 통로가 되기도 하였다. 제주시와 조천면 이외의 지역들에서는 어떻게 돛고기 부정이라는 신화소가 당신의 성격과 연결되고, 또 지역의 역사와 환경에 맞게 변형,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문정, 「제주도의 전통적 출산관리에 관한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3권 1호, 1999.
- 문무병, “제주도 당 신화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마빈 헤리스, 『문화의 수수께끼』, 박종렬 옮김, 한길사: 1993
- 송성대, 김정숙, 「濟州島 神話 속의 女性原型 研究」, 『문화역사지리지』, 12권 1호, 2000.
- 신혜숙, 이경희, 「산욕기 여성의 경험 -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여성

복된다. 이처럼 돛고기 부정의 서술에서 본풀이마다 다양성을 보이는 것은, 제주의 마을의 확산과 통합, 심방의 이동성 때문일 것이다.

24) 본 논문에서는 살펴보지 않은 지역의 본풀이에서는, 전처를 돛고기 부정으로 내쫓고 난 뒤 새로 들인 후처가 남편의 전처 대접이 심하다고 말하면서, 귀양가 있는 전처를 찾아 나서는 대목이 등장하기도 한다. 한 예로, 표선면 토산리의 본향당 본풀이가 그러하다.

건강간호학회지』, 4권 2호, 1998.

장주근, 「제주도 당본풀이의 계보 구성과 지역적 정체성 연구」, 『비교민속학』, 29권, 2005.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조성윤 외,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2003.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Abstract

The ‘Impurity of Pork (Dotgoki-impurity)’ in Jeju Island’s Village-Myths

Kim, Jin-young

In most of Jeju’s village-myths, two gods (especially gods and goddesses) in the same village or village temple are separated by ‘impurity of pork’, specially called ‘Dotgoki-impurity’. In this paper, the author examines the meanings and functions of Dotgoki-impurity in Jeju-city and Jo-chun myun’s village-myths, based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geographical feature, the characteristic of village god/goddess, and the usage of Dotgoki-impurity. After analyzing the village-myths’ inner structure and the general taboos on women in Jeju island, the author concludes that there are two main functions in Dotgoki-impurity used in myths. First, Dotgoki-impurity was used ideologically to strengthen the sex discrimination among the village members. Second, Dotgoki-impurity in myths helped to inherit the taboo effectively among the female villagers for the practical uses.

Key words: Jeju-island, impurity of pork, Dotgoki-impurity, taboo, village-myths